

축구의 세계화, 그리고 정체성의 정치*

이 성 형
단독/이화여자대학교

Rhee, Sung-Hyong(2006), *Globalization of Football and Identity Politics*, *Revista Iberoamericana*, 17, pp. 91-114.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can be felt in the arenas of borderless economies, free trade, including in the world of tastes of wines and football styles. Traditionally football matches in the World Cup games used to be a theatre for the display of national character and style. Recent developments since the invention of 'total soccer' style of Netherlands show the demise of 'art soccer' and homogenization of styles across the continents. Now Asian football teams are also playing versions of game that have become homogenized into a loosely defined "global style" catching up the European total soccer. Fans are no longer witness to epic style between national cultures when games are played. But they can also discern specific hybridities reflected in the team colors. Football games in the global arena is now defined as a 'warfare by other means' in the TV screen, making each nation "90 minutes' patriot". If we define the soccer as an invention to contain the violent passion in the modern world, the regional football league in the Northeast Asia can be helpful to lessen the growing animosities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t could be also functional to the build-up of sustainable peace and common prosperity in this turbulent area where we can see the "clashes of nationalism" among nations.

Key Words: identity politics/ total soccer/ postfordist soccer/ football nationalism; 정체성 정치/ 토털 사커/ 포스트포디즘 축구/ 축구 민족주의

* 이 글은 원래 『평화포럼 21』(2006년 통권 3호)에 쓴 글을 가필하고 수정하여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축구와 국제평화'에서 발표한 것이다. 토론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영국 더럼 대학교 사회학과와 줄리아노티 교수, 『이베로아메리카연구』지의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1. 들어가면서

“부르고뉴 포도주와 보르도 포도주 둘 다 마실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나는 투쟁을 한다.” 20세기 사회학의 마지막 거장 피에르 부르디외가 죽기 전에 한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프랑스 사람들의 식사 습관도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위협을 받는 것 같다. 다양성은 글로벌 스탠더드란 이름 아래 서서히 소멸되고 있다. 부르디외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요하는 획일화에 저항하는 것이 이 시대 사회과학의 임무란 말을 남기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간간한 감식가조차도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와인, 캘리포니아 와인, 아르헨티나 와인, 칠레 와인, 스페인 와인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이제 잘 안다. 조금 있으면 포도주 감식가란 직업조차 없어질지 모를 일이다. 애호가도 좋아하는 카베르네 쇼비농 13도는 어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가격 대비의 미세한 차이뿐이다. 물론 미세한 차이를 감별하는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의 극성은 여전하다.

맛의 차이는 포도 종자와 도수의 차이로 좁혀진다. 종묘를 공급하는 소수의 다국적 회사 덕분에 포도 종자의 다양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모두 소비층인 다수의 평균적인 입맛에 맞는 수익성 모델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땅과 기후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도 인공위성의 사진 촬영과 과학적 영농 방법을 응용하면 거의 벤치마킹하는 모델에 수렴한다고 한다.

결국 포도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린 포도나무를 키우고, 가지를 치고, 수확 시기에 포도를 따고 포장하는 계절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스페인에는 모로코의 불법 노동자들이, 프랑스에는 알제리의 노동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멕시코의 불법 노동자들이, 칠레의 마이포 계곡이나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는 값싼 여성 노동력이나 볼리비아, 페루의 사람들이 동원된다. 불법 노동자의 확산 메커니즘은 세계화의 경쟁이 가져온 자연스런 귀결이다.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국경선이 때때로 고무줄처럼 유연한 까닭도 이들 불법 노동자들의 유입이 없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미국 남서부의 과실농가들 때문이다.)

칠레의 마이포 계곡, 아르헨티나의 멘도사, 남아공의 포도 재배지가 경쟁력을 갖는 까닭도 바로 값싼 노동력에 대한 거의 무한한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뒤 칠레 포도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아울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프랑스와 이탈리아 포도주는 밀려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게다가 칠레산은 프랑스 회사들이 투자한 경우가 많고 당연히 유사한 종자와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 많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에도 이런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가 숨어있다.

II. 토털 사커의 세계

1. 토털 사커의 탄생

축구라고 세계화와 단순화의 덩어리에서 자유로울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언젠가부터 화려한 개인기의 삼바 축구가 사라져버렸고, 당김음(syncopation)과 순간적 반전이 특징인 탱고 리듬의 축구도 해체되어 버렸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환상문학이 남미 태생이듯이, 문지기까지 개인기로 제치고 공을 차 넣는, 심지어 엉덩이로 공을 골대에 밀어 넣는 환상축구가 남미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환상축구는 사라져 버렸다. 축구의 세계에서도 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있다. 글로벌 문화로서 축구도 이제 탈영토화되고 있고 글로벌 상품 논리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Giulianotti, 1999, Villena Fiengo, 2003) 이제는 아름다운 예술로서의 축구는 중년 세대의 기억 속이나 아니면 영상 자료실에 고이 모셔진 필름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릴 적에 보았던 펠레의 신기에 가까운 묘기, 다리와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며 순식간에 3~4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느긋하게 골을

1) 이러한 미국 과실농가와 불법노동자가 처한 어려움과 딜레마에 대해서는 에릭 솔로서(2004), 제2장 "딸기밭에서"를 참조하십시오. 포도밭도 대동소이한 현실이다.

성공시킨 디에고 마라도나의 환상적인 플레이는 일상에 찌든 모든 이들에게 경이로운 세계로 여행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새끼줄을 둘둘 말아서, 돼지 방광에 바람을 넣어 공을 찼던 1970년대 우리나라 시골 어린 이들도 ‘피터 팬’과 후크 선장은 몰랐지만 펠레나 마라도나는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20세기 축구사가 대담성에서 두려움에 이르는 여행이라는 사실은 2-3-5에서 4-3-3, 4-4-2를 거쳐 5-4-1로 이르는 전술의 변화다. 그 결과 지난 50년간 골인 평균치 숫자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점점 빨라지고 점점 멎을 잃어가는 프로축구는 패배에 대한 공포로 인해 주력과 힘의 경연장으로 변했다”고 우루과이 작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축구, 그 빛과 그림자』에서 갈파한다.(갈레아노, 2002, 290) 환상축구가 딱딱한 경영학 축구로 바뀐 것이다.

적어도 1970년 월드컵 대회까지는 아름다운 축구, 즉 예술축구가 지배했던 좋은 시절(벨 에포크)이었다. 하지만 1974년에 이르러 네덜란드의 토털 사커의 “토털 혁명”(Mejía, 2002)이 도래했다. 가장 인간적인 몸의 경기는 이제 첨단기법이 동원된 과학실험이 되었다. 이제 이상적인 축구 선수는 펠레 같은 개인기나 육체적 조건을 지닐 필요가 없다. 요한 크루이프가 이끄는 네덜란드 팀(‘공학 오렌지’라 불렸다)이 혁명을 주도했다. 네덜란드 팀은 전원수비, 전원공격으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트렸고, 이내 곧 축구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작가 축구” 내지 “예술축구”에겐 죽음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왔다.

198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의 대결은 신질서와 구질서가 한 판의 승부를 벌린 막간극이었다. 세계축구에서 있어 “마술적 사실주의”(magic realism)의 최후 대가였던 디에고 마라도나는 이탈리아 수비수 브루노 콘티와 클라우디오 젤틸레에 걸려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신질서가 승리에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어 1990년 월드컵 대회에서 세 번째로 우승을 낚은 독일은 토털 사커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했다. 독일은 언제나 전차부대처럼 구조로 움직였고, 강건한 신체적 조건을 지닌 전사들은 작전지도와 시간표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예술은 이제 과학과 기계에 밀려 사라져 버렸다.

그라운드를 뛰는 예술가들은 이제 정신없이 공을 따라 뛰어다니는 독일병정이 되었다. 테일러주의 경영학이 요구하는 시간연구와 동작연구의 규범이 그들에게도 뒤늦게 적용되었다. 우선 주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없었다. 일의 종수도 늘어났다.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해야 했고, 수비수가 움직이는 반경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제 그라운드의 댄서들이 보여준 경이로운 몸동작과 드리블링은 금지되었고, 오히려 새 없이 움직이는 몸놀림과 속도, 그리고 힘만이 강조될 뿐이었다.

2. 공급 부문: 축구 종속이론

축구선수들은 이제 발노동자가 되었다.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우선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만큼 축구 선수로 누리는 수명이 당연히 짧아졌다. 프랑스 풋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프로축구 선수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6년으로 반감됐다고 한다(Galeano, 2002에서 재인용). 프로 경기 수는 늘어났고, 선수 수명은 줄어든 만큼 크게 부족한 수요는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한다. 따라서 포도주 산업처럼 프로 축구 산업에도 이민 노동자들이 줄을 잇는다.

물론 선수가 원한다면 ‘제국적-공화적’ 시민권(imperial-republican model)의 은전을 베푸는, 따라서 국적을 부여하는 너그러운 공화국들도 있다.²⁾ 과거의 식민지나 이민국가에서 온 선수들에게 베푸는 은전이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수리남 출신들이, 프랑스에는 알제리나 세네갈 같은 옛 식민지 출신이 많은 것이다.

축구 노동자들의 고달픈 여정은 이렇다. “자신의 마을에서 내륙 도시

2) 서구 사회의 시민권 모델을 캐슬과 밀러는 네 가지로 요약한다. 비실체적 모델, 배타적 모델, 공화적-제국적 모델, 다문화 모델이 그것이다. 비실체적 모델은 이주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본과 이탈리아가 채택한 모델이다. 배타적 모델은 혈통, 소수민족, 언어적 지위가 시민권의 토대를 제공하는 인종적 민족주의 모델로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이 채택한 모델이다. 공화적-제국적 모델은 시민적 지위를 숙지주의에 따르며, 이주자의 지위에서 시민의 지위로 이전하기가 배타적 모델보다 수월한 것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모델이다. 다문화적 모델은 이주가 영구적으로 이뤄지며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는 모델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이 이에 근접해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는 Held et al.(1999)의 제6장 제4절을 참조하시오.

로 나온다. 내륙도시에서 그 나라 수도의 소형 클럽에 들어간다. 수도에서 소형 클럽은 그를 대형클럽에다 팔아넘길 수밖에 없다. 대형 클럽은 부채에 숨이 막혀서, 그 나라보다 더 부유한 나라의 더 강력한 클럽으로 그를 팔아넘긴다. 비로소 그 선수는 유럽에서 자기 직업의 안정된 왕관을 쓰게 된다.”(갈레아노, 2002, 347)

이미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의 국적은 48개나 된다. 이는 2003년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의 참가국 27개를 훨씬 넘는 숫자이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뛰는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은 54.92%나 되고,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뛰는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은 50.10%이다. 유럽의 유명한 팀들을 한번 살펴보자. 2005년 스페인 리그 우승팀은 FC 바르셀로나의 경우 외국인 선수는 63%가 되고, 영국 우승팀인 첼시아 FC의 경우는 72%, 독일 우승팀인 바이에른 뮌헨 FC의 경우도 72%나 된다. 유럽 명문 팀 가운데 가장 외국인 비중이 높은 팀은 리버풀 FC로 2005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당시 기준으로 85%나 된다.(Boniface, 2006, 41-42) 이처럼 유럽의 명문팀들은 매우 두터운 외국인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참가한 브라질 대표선수 22명 가운데, 국내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고작 7명에 불과했다. 15명은 외국인구단에서 뛰고 있었다. 축구 평론가 포어는 약 5천명의 브라질 선수들이 외국 축구단에 계약되어 있다고 추정한다.(포어, 2005, 182) 이 축구선수가 시골에서 식민지 도심으로, 다시 제국의 메트로폴리스로 이동하는 동안 선수들을 사고파는 구단주들, 중계업자들은 짹짹하게 돈을 챙긴다. 반면에 큰 수입을 올리는 선수들은 극소수이다. 마라도나, 호나우딩유, 호나우두, 지단과 같이 유럽의 프로구단에서 큰돈을 벌고 있거나 벌어들인 제3세계 출신 선수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진가를 발휘한 극소수의 엘리트에 해당한다.

브라질이나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 리그에 뛰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여전히 박봉에 시달리고, 빚을 진 상태에 처해 있다. 브라질의 경우 국내 팀들 다수는 리그전이 끝나면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를 쉬게 하고, 다음 경기시즌이 올 때까지 인건비를 절약한다.(Daolio, 1998) 축구의 세

계시장에도 외화내빈의 종속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³⁾ 부등가교환의 사슬 망이 존재하고, 내수시장의 잉여(재주)는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브라질 국내 리그전은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고, 전 세계의 전파를 타는 유럽 리그만 살이 쪼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돈 맛을 보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엄격한 근무조건을 견뎌야만 한다. 이제 텔레비전에 비칠 많은 경기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과거처럼 여름에 휴가를 가던 관행은 사라졌다. 3일간 훈련하고, 일요일에만 경기하던 스케줄도 사라졌다. 선수들은 프로페셔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계약이 만료되면 유럽 15개국에서 자유계약 조건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 같은 것은 없다. 6일 내내 훈련하는 젊은 세대 선수층이 등장하면서 프로축구 선수들의 경쟁도 무한경쟁으로 발전했다. 이제 능력과 끈기가 있는 소수만이 피나는 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유통 부문: TV와 글로벌 마케팅

이미 오래 전에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놀이하던 인간 호모 루덴스(homo ludens)가 수동적인 시청자(視聽者) 호모 비덴스(homo videns)가 되어 버렸다. 놀던 인간이 구경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축구의 역사는 즐거움에서 의무로 변해가는 서글픈 여행의 역사다. 축구의 산업화와 더불어 경기를 하며 느끼는 단순함의 미학이 사라져버렸다”고 갈레아노는 갈파한다. 문제는 축구산업이 미디어와 결합하고 세계화되면서 비즈니스의 경계와 규모가 엄청나게 대형화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축구계에 진행된 상품화의 논리는 프로 팀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다른 한편으로 관련업계의 담합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축구산업의 매상고

3) 2006년 월드컵에 참전하는 선수단 가운데 가장 몸값이 비싸다고 알려진 브라질 대표선수단의 몸값에서도 유럽리그와 국내 리그의 격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유럽리그에서 뛰는 호나우딩유(FC 바르셀로나)는 계약금으로 1억 2천 5백만 유로, 카카(AC 밀란)는 3천 5백만 유로, 아드리아누(인터밀란)과 호나우두(레알 마드리드)는 각각 3천만 유로, 주지뉴(올림픽 드 리옹)는 2천만 유로를 받았지만, 상파울루 팀에서 뛰는 로제리우 세니의 계약금은 기껏 150만 유로에 불과하다. “Brasil, la seleccion mas costosa”, *La Jornada*, 2006.6.7.

는 1994년 2천 2백5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규모는 93년 GM 매출액의 두 배 가량 수준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변신이다. 1994년부터 2002년 사이 축구를 둘러싼 주변 세계는 글로벌 마케팅의 논리에 따라 환골탈태한다. 이제 스포츠 용품사(나이키, 아디다스), 방송사와 광고주들은 과거 국지적, 국민국가적 한계 속에서 획정된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다. 유럽의 명문클럽들과 국가대표팀도 한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초국화의 길을 걷는다. 유럽 명문 축구팀들의 경기가 텔레비전의 전파를 타고 유럽을 넘어 라틴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비춰진다. ESPN과 같이 24시간 방영을 하는 스포츠 채널의 등장은 이런 초국화의 경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 용품 회사, 채널 TV, 명문클럽이 글로벌 마케팅 논리를 수용하고, 여기에 축구산업의 통제자이자 조직자인 FIFA가 가세하면서 축구산업의 세계화는 완성된다.

과거에 FC 바르셀로나 팀은 스페인 국가 내에서 강력한 정체성을 구축한 작은 국가 카탈로니아를 대표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FC 바르셀로나 팀의 지지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에서도, 이집트나 일본에서도 FC 바르셀로나의 열성 팬들이 생겼다. 카스티야 왕당파들의 클럽이었던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로 세계화되었다. 영국인 베컴도 브라질인 호나우두도 모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다. 잉글랜드의 리그전도, 유럽의 리그전도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청소년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제 일본이나 한국의 아이들도 호나우두나 베컴의 유니폼을 선망하고, 부모들은 훌쩍데기 반소매 셔츠 한 장을 60-70 유로에 사다 들인다.

호나우두나 데이빗 베컴과 같은 축구영웅을 세계 전체에 상품으로 팔려면 사람들의 귀와 눈을 반복적으로 자극해야만 했다.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24시간 내내 방영되는 ESPN은 그런 점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공로자들이다. 얼마 걸리지 않아서 세계인들은 스크린을 통해 베컴이 곧 영국 최고의 선수일 뿐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이라고 기억하게 되었다. 베컴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세계 전역에서 TV와 스포츠 일간지의 단골 뉴스가 되었다. 스파이스 걸인 빅토리아 아담스와 결혼한 그

가 페라리를 선물로 받은 이야기, 밀월여행과 애정행각의 후일담까지도 뉴스화되었다. 호나우두의 사생활도 곧 뉴스감이 되었다. 여자친구와의 불화도, 멋진 브라질 모델출신과의 만남도 모두 세계인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축구가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화되자 국제적 관료기구인 국제축구연맹(FIFA)의 활동영역도 확장되었다. 아무런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는 피파 크래시(Fifacracy)는 텔레비전과 글로벌 마케팅으로 가속화된 축구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벨란제와 블라터로 이어지는 관료장치는 광고주, 구단주, 언론사주를 연결하는 철의 동맹을 형성하고 ‘돈이 되는 축구’를 지향한다.

이제 월드컵 대회는 20억이 보는 세계제전이 되었다. 피파가 2002년과 2006년의 중계권을 독일의 키르히 미디어(Kirch Media)에 판 가격은 22억 4천만 달러라고 했다.(Villamil, 2002) 키르히 미디어는 이 중계권을 다시 권역별로, 지역별로 해당 방송사들에다 잘라서 판다. 투자자들은 자국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일찌감치 떨어진다면 별로 재미가 없다. 천문학적 돈이 오가는 게임에 감시자는 거의 없다.(Tomlinson, 2002) 엄청난 돈을 주무르는 국제축구연맹의 존재는 “감시자를 대체 누가 감시하는가”(Who guards guardians?)란 대단히 고전적인 정치적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4. 포스트포디즘 축구

앞서 말했듯이 현대축구는 다기능적인 기능공을 선호한다. 그래서 경영학 용어를 빌어 ‘포스트포디즘형 축구’(Giulianotti, 1999)라 명명할 수 있다. 예술축구는 이미 사라졌고 경영학 축구와 수비 축구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네덜란드의 토털 사커와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cadenaccio)가 판을 지배하게 되었고 브라질의 삼바 축구는 다시 로컬 축구로 전략해 버렸다. 남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 축구의 모방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제 전위나 후위의 개념도 상대화되었다. 선수들은 경기장을 가로 지르며 쉴 새 없이 뛰어야 한다. 흐름을 이어가는 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체제는 ‘작가(auteur)의 죽음’과 ‘댄서의 죽음’을 강제한다. 축구 스타일이 동질화되고 획일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진부해졌다.

“축구에서 골은 오르가슴에 해당한다”고 갈레아노는 말했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축구에서 오르가슴은 참으로 귀하다. 모두 한 골에 살고 죽는 게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경기는 쓰리백(사실상 수비수는 다섯 이다)이나 포백 체제로 가동된다. 세계 최고수급인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브라질도 모두 한 골에 목숨을 건다. 전광판의 불은 1:0, 1:1, 아니면 2:1을 가리키며 꺼진다. 과거 환상축구의 대명사였던 브라질의 경우도 한 골을 넣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전 선수가 수비에 나선다. 공은 사이드라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선수는 들어 누워 시간을 질질 끈다. 이기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1천골을 넣은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던 펠레는 아스라한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유럽리그에서 뛰는 뛰어난 골잡이도 선수 생활 내내 100골을 넣기도 힘들다. 이중 삼중으로 친 수비수들의 철조망이 그의 앞길을 가로 막는다.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도 게임당 평균 골수는 2.5 골 전후에 불과하다. 평균 골수가 4골을 넘었던 초기 월드컵 경기들에서 점진적으로 퇴화한 것이다. 축구의 산업화와 세계화로 큰 돈을 벌게 된 구단주와 광고주, 스포츠용품 회사, 국제축구연맹은 싱글벙글 웃는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즐거움이 반감된, 아름다움이 사라진 슬픈 세계화의 현실에 거저 민족주의적 열정이나 향토심만 불태울 뿐이다.

Ⅲ. 축구 민족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1. 2002년의 서울 월드컵

2002년 6월 서울에서 우리들은 광란의 낮과 밤을 경험했다. 월드컵 축구를 매개로 한 붉은 색의 축제였다. 붉은 색에 대한 금기가 대단히 강했던 우리 사회는 다시 이 원색과 화해를 했다. 좌도 우도 모두 붉은 색이 되었다.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여

름날의 열기들, 그리고 원색의 축제들. 광화문 거리를 메웠던 그 붉은 인파들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거대한 스펙타클에 어울리지 않는 질서정연함. 활기가 넘쳐흘렀지만 어딘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월드컵 축구는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자화상이었고, 거울이었다. 또 불쑥 성숙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스타일을 담아낸 그릇이기도 했다. 벌써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지난 지 4년이 되어 가지만 그 열기와 여진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 2002년 6월은 아직도 해독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암호문과 같다.

2002년 월드컵은 축구 세계에 진행된 세계화의 여파를 잘 보여주었다. 8강이 겨루는 준준결승전에 5개 대륙 국가가 고루 진출했다. 아시아(한국), 북중미(미국), 아프리카(세네갈), 대륙이 유럽과 남미 일색의 8강 중 원에 발을 들이밀었다.(손원재, 2002) 세계 축구의 변방인 아시아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공동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은 같이 16강에 올랐고 또 세계 축구인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4강 진출이란 기염을 토한 우리나라의 경우 네덜란드의 ‘토틸 사커’를 성공적으로 접목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끌었던 우리나라 축구팀은 다기능공을 선호하는 포스트포디즘 체제에 맞는 체제 개편을 큰 무리 없이 해냈다. 설 새 없이 뛰어야 하고 흐름을 연결하는 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체제에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적응했던 것이다. 적어도 축구에 관한 한 세계화 전략은 단기간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축구의 세계화란 측면에서 2002년 대회를 음미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 대회는 1970년대 이후 약화되기 시작한 예술축구가 완전히 죽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흔히 ‘작가(auteur)의 죽음’에 비유된다. 우승국이었던 브라질 대표팀의 축구조차 스킨라리 감독에 의해 속도와 수비를 강조하는 경영학 축구로 변했던 것이다. 유럽축구와 남미축구의 편차도 이제 거의 사라졌다.

둘째, 축구의 세계화로 전통적인 강호였던 유럽과 남미의 득세가 다소 약화되었고, 그 틈새에 아시아와 북미, 아프리카가 약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기술과 전법에서 우위를 지녔던 유럽, 섬세한 몸놀림과 경이로운 플레이로 공격축구를 주도해온 남미축구는 포스트포디즘의 확산으로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다. 축구에도 상품주기론(product life-cycle theory)이 적용될까? 모든 제품이 흥망성쇠의 부침을 타듯이 말이다. 2002년 대회에서 8강에 들었던 한국, 미국, 세네갈, 터키의 부상은 세계화 축구의 새로운 판도와 위상을 잘 보여준다.

셋째, 이제 기술과 체력의 조건이 평준화된다면 그 팀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능력 있는 감독이 중요해진다. 능력이 출중한 감독은 글로벌 대기업의 CEO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으로 계약을 맺는다. 감독은 시스템의 디자이너이며 전장에서 전투를 지시하는 지휘관이다.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진다. 뛰어난 체력과 경기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만 있다면 누구나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제 드리블링 능력이나 화려한 개인기는 일류선수가 지녀야 할 덕목은 아니다. 오히려 단점이 된다. 감독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순종적인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된다.

1998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프랑스는 2002년 대회에서 6명의 감독을 수출하여 고급 기술인력 수출국으로 주가를 높였다. 2006년 대회에서도 네덜란드와 동유럽 출신의 감독 여럿이 각국 대표팀을 맡고 있어서 유럽의 토탈 사커의 세계화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선진국 축구의 기술과 전법이 확산된다고 해도 여전히 ‘몸의 예술’인 축구는 나름대로 독특한 편차를 만들어 낸다. 몸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카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독일인이 탱고를 추면, 싱코페이션의 춤사위는 짧은 스타카토의 둔탁함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북구인들이 라틴음악을 소비한다면 그 한계는 그룹 아바(Abba)의 노래 정도일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세계화가 기술과 전법의 모방과 획일화를 확산시킨다고 해도 검은 피부의 부드러운 울동을 완전히 해체할 수 없는 것이다. 세네갈과 브라질의 축구가 독일, 미국, 잉글랜드의 축구보다 아름다운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의 축구 가운데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축구가 독일과 이탈리아 축구보다 아름다운 까닭도 마찬가지이다. 세계화도 역시 피부색과 지방색을 떨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어서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축구에서 국민적 정체성이 축구에 어

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2) 라틴아메리카: 축구, 민족주의, 그리고 피부색

근대 축구와 포스트모던 축구에서 피부색과 인종주의, 그리고 국민적 정체성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전통적으로 피부색 문제가 역사의 중심주제로 자리를 잡았던 라틴아메리카의 예를 먼저 살펴보자. 멕시코의 저명한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다. “멕시코인들은 아즈텍 족에서 내려왔지만, 아르헨티나인들은 배에서 내려왔다.”(Mexicans descended from the Aztecs, but Argentines descended from ships.) 멕시코는 곧 유럽인과 원주민의 혼혈로 메스티소란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지만, 배에서 내린 아르헨티나 인들은 끝없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정체성 추구는 정신병적 차원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 이 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인구비례로 프로이트 류 서적을 가장 많이 읽는 민족이 되었다.

이런 종족적 특성 때문에 멕시코는 혼성(hybridity)으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아르헨티나는 혼성을 불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두 나라는 근대의 탄생과 더불어 축구를 받아들이지만, 수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달랐다. 1880년대 초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영국인들은 자신의 스포츠를 이곳에다 전파했다. 곧 아르헨티나는 클럽을 중심으로 축구가 퍼져 나갔다. 1930년대부터 도시에서는 클럽이 후원하는 프로페셔널 리그전이 치러졌고 아르헨티나의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는다. 이미 아르헨티나에선 1920-30년대부터 축구의 민족성을 따지는 담론이 형성된다. 특히 이들은 영국의 기술과 선수 양성법을 모방하는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기를 담은 탱고 리듬도 받아들였다. 1940년대 리버 플레이트 팀의 총아 모레노는 이렇게 말했다. “탱고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다. 리듬을 타고, 뛰면서 리듬을 바꾸고, 옆구리를 움직이며, 허리와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다.” 유연하면서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탱고축구의 정체성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페론이 집권한 민주주의 시기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는 ‘공식적 민족주의’의 내용을 채운다. 초등교육이 확산되었고, 스포츠 교육과 축구도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 민주주의는 이제까지 민중들에게 금지된, 민족성(국민성)을 아래로부터 구성하고 재건하는 역할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정치적 몸(body politic) 만들기에 축구가 이용되었던 것이다. 1948년에 나온 영화 <형질로 만든 공 Pelota de trapo>은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린 축구영화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남미 결승전에서 붙는다. 인기절정의 축구선수 보는 심장병의 통증이 견디기 힘들지만 경기장에 나오며, 이렇게 내뱉는다. “그래,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아. 이것도 조국 사랑이라고.”(Alabarces y Rodriguez, 1997) 민중과 조국과 축구는 이 선수의 대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융합된다.

하지만 멕시코는 달랐다. 원주민과 백인이 혼혈한 300년의 식민사가 존재했기에 근대성의 도래와 더불어 축구가 도입되었지만, 그 축구는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도시의 축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도시 주변의 마을(barrio: 원주민과 혼혈인이 뒤섞여 사는 곳)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리그전이 유행했고, 축구팀의 재정도 마을의 유력자나 공동체 성원들이 책임을 졌다. 멕시코에서 축구는 비교적 싼 비용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멕시코 축구는 훈육이나 트레이닝을 거부하는 “원시적 게임”이었다. 뛰어난 축구 선수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채 바리오의 열정을 담은 발재간꾼이던 되었다.(Zavala Rivas, 2001)

193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고 근대화가 가속화되면서 멕시코 축구 역시 클럽화의 길을 걷는다. 대학들도 축구팀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멕시코혁명(1910-17) 이후 탄생한 혁명 정부의 열기가 식지 않았던 때인지라 축구는 곧 국민적 정체성 추구의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대중들은 당시 1부 리그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했던 스페인계 클럽(에스파냐, 아스투리아스)에 대항하는 팀에 성원을 보냈고, 축구경기는 곧 멕시코인 됨(mexicanidad)을 확인하는 장치로 소비되었다. 아르헨티나 축구가 도시에 모인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스펙터클이었다고 한다면, 멕시코 축구는 과거와 현재, 다양한 문화가 화해하고 공존하는 혼혈과 융합의 의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에 대항하는 메스티소 민

족주의의 전도벨트가 되었다.

반면 브라질 축구는 위 두 나라와 인종 구성이 달랐기에 좀 색다른 역사를 걷는다. 축구가 19세기에 도입되는 계기는 비슷하다. 아르헨티나와 유사하게 영국인과 엘리트 중심의 아마추어 클럽 축구가 한쪽으로 활성화되지만, 이는 곧 인구의 다수인 흑인과 몰라토의 공장 지대로 확산되었고 축구의 대중화가 일어났다. 가난한 흑인소년들의 꿈은 축구선수로 공장노동자를 겸하는 자리를 탐냈다. 이중 보직이면 직업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금도 후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흑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축구에 매달렸고, 공 하나로 일상생활의 시름을 잊었다. 곧 리오나 상파울루의 빈민가에 축구는 대중적 행사가 되었다. 그 결과로 1923년에 일찌감치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리그전에서 흑인 혼성팀인 바스코 다 가마가 우승을 차지했다. 백인 스포츠로서 군림하던 축구가 드디어 흑인과 혼혈인의 무대로 변한 것이다.(Leite Lopes, 2002)

하지만 흑인선수들은 아무리 잘 뛰어도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깊이 물든 백인주류 사회에서는 백안시되었다. 이들은 흑인이나 혼혈인이 용인되는 몇몇 클럽이나 기업 소속팀에서만 뛸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유럽(특히 이탈리아)의 구단주들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백인선수들을 열렬히 받아들였지만, 흑인이나 혼혈 선수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유럽 축구에서도 피부색이 중요했던 것이다. 당시까지 맹위를 떨쳤던 인종주의 생물학에 따르면 흑인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판단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백인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종주의 생물학은 1930-40년대까지 브라질 엘리트 사회를 지탱한 중심 이데올로기였다.

곧 민중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기 위해 스포츠를 대대적으로 활용했다. 학교와 작업장에서 체조와 구기 종목이 대대적으로 보급되었고, 민족주의를 고양할 수단으로 축구 대표팀이 활용되었다. 새로운 국민이란 정치체(body politic)는 시민의 몸체를 가꾸고 다듬어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민중주의는 백인 중심주의, 엘리트 중심주의와 선을 그어야만 했다.

이미 브라질 사회에서 흑인들과 몰라토가 뛰는 혼성구단들이 국내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거두고 있었다. 이들은 유럽으로 간 백인 선수

들을 대신하여 브라질 축구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다.(Lopes Leite, 2002, 136-7) 민중주의 시대의 뛰어난 역사학자와 민속학자였던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는 인종주의 생물학과 인류학을 비판하였고, 브라질에서 인종간의 조화와 혼혈을 ‘인종적 민주주의’(racial democracy)란 용어로 상찬하였다. 미국이 흑백분리(segregation)로 인종적 억압이 심한 나라라면, 브라질은 혼혈에 대한 용인으로 인종간 조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주인과 노예』의 저자는 말했다. 이제 흑인성, 혼성 숭배, 인종간의 조화는 민중주의 시대의 지배이념이 되었다. 흑인들과 혼혈이 지배하는, “허리가 휩휩 돌아가고, 몸이 파도치듯 출렁대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축구” 곧 삼바 축구가 새로운 정치인 세대와 국민들로부터 승인되었던 것이다. 흑인음악이었던 삼바가 국민예술로 부상하고, 삼바 축구가 대중들로부터 시민성을 획득한 것도 바로 이런 민중주의 시대의 정치적 맥락에서였다.⁴⁾

그렇다고 인종주의가 일거에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었다. “달리는 백인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달리는 흑인은 도둑놈”이란 속담도 여전히 사회의 일각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뛰어난 유색인 선수들은 보이지 않은 피부색의 불평등을 공으로 희롱할 수 있었다. 정치인류학자 제임스 스캇(James Scott)의 표현을 빌자면, 축구공이 “약자가 저항”하는 무기로 둔갑했다고나 할까. 브라질 선수들은 키퍼까지 체치고 엉덩이로 골을 넣기도 하고, 이런 저런 재기를 통해 경기규칙(곧 사회 자체)을 비웃을 수 있었다. 선수는 건달(malandro)처럼 허리를 유연하게 흔들며 불을 갖고 놀았다. 인류학자 로베르투 데 마타는 ‘건달’이야말로 브라질 축구, 아니 브라질 사회와 문화의 정체성을 잘 담지하고 있다고 갈파했다. 유럽축구는 근육질, 육체적 강고함을 강조하는 형식이라면, 브라질 축구는 임기응변, ‘허리 놀림’(jogo de cintura)으로 상대를 부드럽게 돌파한다.(Da Matta, 2002) 브라질 선수나 브라질 정치인에게 황금률은 잘 빠져나가는

4)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문화인류학적 해석의 유산에 대해서는 Antonio Jorge Soares(2003)를 참조하시오. 프레이리는 “삼바의 일부, 바이아의 몰레카, 페르남부쿠의 카포에이라, 리우의 건달”이 브라질풍 축구의 뿌리라 말했다. 그는 브라질 축구는 “어쨌든 춤에 가깝다”고 갈파했다. 이를 ‘건달’(malandro)이라는 브라질 문화의 코드로 축구에 응용한 저작은 Da Matta(2002)이다.

방법을 아는 것이다. 관중을 진짜 즐겁게 하는 것도 많은 특징이 아니었다. 완벽한 골이었다. 완벽한 골은 건달 같은 선수가 환상적인 개인기로 키퍼까지 제치고 살짝 밀어 넣는 것이다. 경기장의 관중들도, TV 스크린을 보는 대중들도 이런 묘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렸고, 지배질서를 희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삼바축구의 경이로움은 각박하고 힘든 현실을 뒤엎는 카니발의 카타르시스 장치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과거지사가 되었다.

3. 유럽: 축구, 이민, 인종주의

포스트모던 축구에서 인종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요즘 불법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의 예를 들어 간단히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팀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재미있고, 반면에 하얀 피부색 일색의 팀의 경기는 별 재미가 없다. 디아스포라 시대에 이민정책도 축구의 컬러에 영향을 준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그런 점에서 과거 식민지 출신이나 외지인들에게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시민권을 주저 없이 부여해주는 네덜란드나 프랑스의 축구가 훨씬 재미있고, 그런 유연성이 결핍되어 있는 이탈리아나 독일의 축구는 여전히 딱딱하게 보인다.

2002년 한국-이탈리아전이 끝나면서 이탈리아 여론은 편파 시비를 걸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한 바 있었다. 사실 유럽국가 가운데 불법 이민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가장 배타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이다. 이탈리아의 시민권 모델은 앞서 주 3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주공동체를 아예 무시하는 ‘비실체적 모델’에 해당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민에 대해 가장 인종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라치오 팀의 서포터들은 파시스트 식 경례를 할 정도로 극우적 민족주의 성향을 자극한다. 국가대표 축구팀 역시 가능한 한 순혈주의를 고집한다.

프랑스의 좌파 평론가 파스칼 소바지는 이렇게 논평한다. “극우는 깜짝쇼를 연출한다. 울트라 스포터들은 TV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고 동조자들을 규합하려 한다. 오늘날 파스스트 그룹들은 이탈리

아 축구팀을 가지고 있다.”⁵⁾ 게다가 2002년 월드컵 시절은 북부의 언론 재벌이자 AC 밀란의 구단주를 겸하고 있던 우파의 베를루스코니 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세계축구의 변방이었던 한국에 강호 이탈리아가 패하자 이들은 신경증의 증세를 보였다. 어떻게 하얀 피부가 황색 피부에게 밀릴 수 있단 말인가. 이탈리아 언론도 덩달아 과민 반응을 하였다.

프랑스 팀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선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우익 정치인 르펜은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가리켜 “아프리카 국가팀”이라고 냉소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이미 프랑스 국내의 일부 리그전에서도 프랑스인과 외국인 선수의 비중은 6:4 정도나 된다. 총 534명 가운데 209명이 외국인 선수이고, 이 가운데 아프리카 출신 선수는 115명, 브라질 선수는 27명이나 된다. 프로팀 올랭피크 드 마르세이유의 경우 외국인 선수는 63%나 되고, 13개국의 선수들이 뛰고 있다.(Boniface, 2006, 42)

우리는 월드컵 당시 경기 시작 전에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는 검은 이들의 모습에서 ‘제국적-공화주의 모델’의 너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회에서 국민 영웅으로 부상했던 지단은 알제리 출신이다. 당시 프랑스가 우승컵을 쥐었을 당시 개선판 광장에는 “지단을 대통령으로”란 플래카드가 붙었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전통적으로 유럽의 강호인 네덜란드도 역시 구식민지 출신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구식민지인 카리브 섬 출신에게도 똑같은 시민권을 부여하는 너그러움에서, ‘혼종성’(hybridity)을 문제가 아니라 강점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서 우리는 강소국의 교훈을 읽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국내 1부 리그의 외국인 비중의 변화

시즌	1995-96	2002-03	2003-04	2004-05	2005-06
외국인	18	32	37	38.4	38.4(209명)
프랑스인	82	68	63	61.6	61.6(334명)

5) Pascale Sauvage(2006), “Le racisme empoisonne, le football italien”, *Le Figaro*, 30 novembre 2005. Boniface, 154에서 재인용함.

출전: Boniface(2006, 41)

IV. 결론: 축구와 평화

축구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는 정치의 연장”⁶⁾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시간은 이제 탱크가 지나가고 야포가 터지는 전장보다 TV 화면에 더욱 자주 등장한다. 전후 독일인들에게도 축구는 그들의 국민적 정체성을 가두는 유일한 장치였다. 2차 대전의 패배 이후 좌절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축구는 “낡은 악령의 영겁회귀나 민족주의의 부활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씻으면서” 독일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그들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제의가 되었다. 독일의 전차군단은 이제 독일 축구대표팀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축구는 전쟁과 포성이 사라진 유럽에서도 국민적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이제 월드컵 제전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대전이다. 1989년 냉전이 종식되고 오로지 미국만이 전쟁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이 시대에 축구는 대부분 국가들에게 가능한 유일한 형태의 전쟁인지 모른다. 그래서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을 치른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경기나, 북방영토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일본-러시아 경기는 해당 국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2002년 당시 국가부도 상태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아야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모든 희망을 축구에다 걸었다. 그래서 16강 진출이 좌절되자, 울분을 삭일 수가 없었다. 당시 한 일간지는 “모든 게 끝났다”란 말로 일면 톱을 뽑았다.

광화문을 뒤덮은 ‘붉은 악마’의 외침도 축구 민족주의의 한국판으로 완벽했다. 2002년 한국축구는 사회성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했고 이질적인 다양한 세력들을 뭉치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 민주화 이래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젊은 세대의 열정이, IMF 이래 청년실업이 지

6) 이 표현은 런던의 타임스 지가 1996년 유럽컵 준결승전에서 격돌하게된 영국 대 독일전을 논평한 글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처음 사용한 논평자는 1981년에 유사한 제목으로 소설을 쓴 피에르 부르기드(Pierre Bourgeade)라고 한다.(Boniface, 2006, 75)

속화되면서 점차 누적되어가는 사회적 불만이, 나아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모두 월드컵 축구란 도가니로 흡수된 것이다. 스트레스 과잉의 사회에, 주기적인 축제가 과소한 사회에 월드컵 축구는 대형 카니발이 된 것이다.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축구의 열정은 일차적으로는 클럽으로, 해당 지역 팀으로 표출된다. 브라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종교가 정해지고 세례를 받고, 동시에 자신이 평생 섬길 팀도 정해진다. 부모들은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지지 팀의 로고나 문장이 새겨진 장식품이나 옷을 아이 선물로 준비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는 부모로부터 지지 팀의 장점, 상대 팀의 단점에 대해 신물이 나도록 주입을 받는다. 그래서 브라질 팬들이 섬기는 클럽팀에 대한 충성심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된다.(Daolio, 1998)

그래서 브라질 팬들에게 펠레는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이기 전에 상투스 팀 선수였다. 과거 상파울루 사람들이 상투스를 지지했다면, 리우 사람들은 플루미넨세를 지지했다. 이들에겐 지역과 클럽에 대한 정체성이 브라질 국가에 대한 정체성에 앞선다. 클럽과 지역적 정체성이 강한 이들과 달리 우리는 오로지 국가대표팀에 대한 열정만을 표출하였다. 단일 민족의 신화는 축구에서도 그대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무궁화 꽃은 다시 피었고, ‘하나 팀의 신화’는 2002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에게 유럽이나 중남미 팬들이 지난 축구팀에 대한 다중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좁은 나라여서 그런지, 프로축구 역사가 일천해서 그런지 지역 팀에 대한 팬들의 열정은 별로 없다. 오로지 국가대표팀과 “매-한국”에 대한 열정뿐이다. 한국 축구의 세계에도 그레고리 핸더슨이 말한 “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가 적용되는 것일까? 하나의 중심이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블랙홀 같은 것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2002년 서울 축제는 “기존의 지배질서를 한시적으로 전도하는” 지배자들의 카타르시스 책략은 아니었다. 우리의 축제는 아래로부터 조직된 측면이 강했다. 붉은 악마는 위로부터 이를 활용하려는 포퓰리즘적 유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적어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젊은 열정을 페론이나 무솔리니, 아르헨티나 독재정권처럼 정치적

지지에 동원하려는 유혹은 적다. 축구는 축제로 끝나야지, 결코 정치적 동원이나 조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2002년 대회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지만 국제언론은 성공작으로 평가하였다.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의 경험이 있고, 역사인식에 대한 편차도 큰 두 국민이 어떻게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하고 바깥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으리라. 하지만 양 국민들은 의외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주 초보적이지만 한일 간에는 동북아를 둘러싼 연대의식 마저도 어슴푸레 느껴지지 않았을까. 미약했던 그 흐름은 역사교과서나 신사참배 문제로 이제는 흔적도 찾아 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16세기 이래 세계경제에서 중심부 역할을 하던 아시아는 아편전쟁을 고비로 유럽에 결정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했다. 식민지, 반식민지의 고통과 전쟁이 뒤따랐고, 전후 질서재편도 서구세력의 주도로 이뤄졌다. 오랜 역사 동안 아시아의 지분은 위축되어왔지만, 지난 50년간 동아시아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고, 그간의 고속성장으로 아시아의 위상은 재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져 순조로운 동아시아의 부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 와중에 열린 2002년 월드컵은 동북아시아의 위상을 세계에 다시금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기에 참가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경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축구에서도 오리엔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우리의 상대적인 성공에 비해 중국의 저조한 실적이 그곳 국민들에게 약간의 소외감과 상처를 낳았겠지만 적어도 월드컵은 상호간의 적대의식이 강한, 그리하여 복고적 민족주의 감정이 상승세에 있는, 소위 “민족주의의 충돌”(clashes of nationalisms)의 현장인 동북아 삼국에 적대완화의 수단이 되었던 것 같다.

축구는 근대성의 산물이었다.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게임은 도시에서 폭력의 순화를 꾀하는 합리화와 문명화의 산물이라고 N. 엘리아스는 갈파했다. 이 합리화와 문명화의 아이디어를 동북아에 적용한다면, 동북아에 점증하는 적대의 파고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삼국 간의 경제

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과 정치-군사적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의 광고시장도, 프로팀의 축구시장도 점차 규모가 커져만 가고 있다. 조만간 삼국의 큰 도시들을 연결하는 순회 리그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참여한 손익계산을 둘러싼 경제적, 정치적 협상 게임에 임하기에 앞서, 동북아 FTA나 평화구상을 그리기에 앞서 동북아 축구 리그전 같은 축제의 장을 공유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아야겠다. 영토분쟁, 역사인식의 편차, 식민지-반식민지 경험 등이 축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지만, 둥근 축구공을 통해 동북아 국민들이 자주 만나고 지역적 정체성을 나름대로 가꿔 간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유럽의 통합과 유사한 지역협력체도 가능할 것이다. 냉전 시기 미국과 중국의 교착상태의 해빙도 작은 탁구공에서 시작하지 않았던가.

참고문헌

- 갈레야노, 에두아르도(2002), 『축구, 그 빛과 그림자』, 예림기획.
- 손원제(2002),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신대륙: 2002년 월드컵에서 드러난 세계 축구의 지각변동’”, 『한겨레 21』, 7월 4일.
- 솔로서, 에릭(2004), 『불법의 제국 미국, 어디로 가시나이까?』, 김은령 옮김, 동방미디어. (Eric, Schollosser, Reefer Madness(2003), *Sex, Drug, and Cheap Labor in the American Black Market.*)
- 포어, 프랭클린(2005), 『축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안명희 역, 말글빛냄.
- Alabarces, Pablo comp.(2003), *Futbologias: Fútbol, identidad y violencia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CLACSO.
- Alabarces, Pablo y Maria Graciela Rodríguez(1997), “Fútbol y patria: La crisis de la representación de lo nacional en el fútbol argentino”, <http://www.efdeportes.com/efd10/parmr.htm>, 2006.2.18.
- _____ (2000), *Peligro de gol: Estudios sobre deporte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CLACSO.
- Archetii, Eduardo, P.(2002), “El portero y el pibe: Territorio y pertenencia en el imaginario del fútbol argentino”, *Nueva Sociedad*, no. 154.
- Boniface, Pascale(2006), *Football et mondialisation*, Paris, Armand Colin.
- Daolio, Jocimar(1998), “La contradicciones del fútbol brasileño”, <http://efdeportes.com/efd10/daolioe.htm>, 2006.2.18.
- Franzini, Fabio(2000), “No campo das ideias: Gilberto Freyre e a invencao da brasilidade futebolistica”, <http://efdeportes.com/efd26a/gfreyre.htm>, 2006.2.18.
- Galenano, Eduardo(2002), “Modelos”, *Página 12*, 2 de junio.
- Giulianotti, Richard(1999), *Football: A Sociology of the Global Game*, London, Polity Press. 복진선 역(2004), 『축구의 사회학』, 현실과 문화연구.
- _____ (2005), *Sport: A Critical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Held, David et al.(1999), *Great Transformations, London: Blackwell Publishers*, 조효제 역(2004),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
- Leite Lopes, J. Sergio(2002), “Fútbol y clases populares en Brasil: Color, clase e identidad a través del deporte,” *Nueva Sociedad*, no. 154.
- Mason, Tony(1995), *Passion of the People? Football in South America*, London, Verso.
- Da Matta, Roberto(2002), *Carnavales, malandros y heroes: Hacia una sociología*

- del dilema brasileño*, traducido por Tatiana Sule, Mexico, FCE.
- Mejía, Mauricio(2002), "La nostalgia por el fútbol bello", *Proceso*, no. 1339.
- Soares, Antonio Jorge(2003), "Futebol brasileiro e sociedade: a interpretacao de Gilberto Freyre", en Alabarces, Pablo comp., *Futbologías: Fútbol, identidad y violencia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CLACSO.
- Tomlinson, Richard(2002), "The World's Most Popular Sport is a Mess of...", *Fortune*, May 27.
- Villamil, Jenao(2002), "El Mundial en pantalla", *La Jornada*, 13 de junio.
- Villena Fiengo, Sergio(2003), "Globalización, identidades nacionales y fútbol", en Alabarces, Pablo comp., *Futbologías: Fútbol, identidad y violencia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CLACSO.
- _____(2000), "El Tercer Milenio: Era del fútbol postnacional?", <http://www.efdeportes.com/efd19/3mil.htm>, 2006.2.18.
- Zavala Rivas, Hector(2001), "Ser o no ser... ahí está el detalle: El fútbol y la cultura popular en la ciudad de México", <http://www.efdeportes.com/efd30/mexico.htm>, 2006.2.18.

이성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대 정치외교학 전공

E-mail: shrhee@ewha.ac.kr

논문접수일: 2006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10일